

# 도손 단편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양상

- 「성장 준비(伸び仕度)」 「폭풍(嵐)」 「분배(分配)」 를  
중심으로-

임 태 균\*

---

## 目 次

---

1. 들어가는 말
  2. 에세이 속에 나타난 ‘노년’에 대한 도손의 심경
  3. 여아의 성장과 노년의 자각- 「성장 준비」
  4. ‘노년’에 대한 극복의 의지- 「폭풍」
  5. 자식들에 대한 부의 분배- 「분배」
  6. 나오는 말
- 

## 1. 들어가는 말

메이지유신 후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노인의 존재의식이 점차 희박해져 가는 가운데, 노인의 배제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근대문학 속에서 ‘노년’이 다루어지게 되었으며 근대적인 의미에서 ‘노년’의 문제가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쇼와기에 이르러서는 ‘노년’의 문제를 다룬 이른바 노인문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다.<sup>1)</sup> 시마자키 도손(이하, “도손”이라 함)의 경우 다이쇼기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노년’을 그린 일련의 소설을 발표했다. 도손은 다이쇼11년 9월에 발표한 감상집 『이쿠라스

---

\* 성결대학교 부교수 일본근대문학

1) 大友英一他2人「座談会 昭和文学に描かれた「老い」」(『国文学解釈と鑑賞』[至文堂, 1989.4], p.6)참조

식(飯倉だより)』에 「노년(老年)」이라는 단문을 발표하였는데, 그는 여기서 “노년은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경이다(老年は私が達したいと思ふ理想境だ)”라고 말하고 있다. 도손이 심중에 그렸던 ‘이상경’으로서의 ‘노년’은 과연 어떤 것이었으며 소설 속에 어떻게 형용되고 전개되어 나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의 장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는 정신세계를 이해하는데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장 준비」(『新潮』1925년 1월) 「폭풍」(『改造』1926년 9월) 「분배」(『中央公論』1927년 8월) 등 다이쇼 말기에서 쇼와 초기에 이르는 작품군에는, ‘노년’에 접어든 작가의 심경이 작품을 지탱하는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작품 해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노년기에 다다른 도손의 작품세계에 나타난 ‘노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 2. 에세이 속에 나타난 ‘노년’에 대한 도손의 심경

앞서 거론한 「노년」이라는 문장 속에서 도손은 자신의 ‘노년’에 대한 심경을 다음과 같이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다.

노년은 내가 도달하고 싶어 하는 이상경이다. 나는 새삼스럽게 젊어졌으면 하는 욕심은 없다. 어떻게든 정말로 나이를 먹어보고 싶다. 열에 아홉까지는 나이를 먹지 않고 시들어 버린다. 그 중 한사람만이 겨우 진정한 노년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老年は私が達したいと思ふ理想境だ。今更私は若くなりたいなぞと望まない。どうかして、ほんたうに年をとりたいたいものだと思ふ。十人の九人までは、年をとらないで萎れてしまふ。その中の一人だけが僅かに眞の老年に達し得るかと思ふ。(밑줄인용자·이하동일. 「老年」 『飯倉だより』)

여기서 도손은 노년을 ‘이상경’이라고 할 정도로 노년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고 있다. 젊은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 노년을 직시하고 진정한 노년에 다다르기를 소원하고자 하는 심정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열에 아홉까지는 나이를 먹지 않고 시들어 버린다”라는 구절은 기타무라 도코쿠를 비롯한 그의 젊은 시절의 벗들을 의식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 중 한사람만이 겨우 진정한 노년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구절에는 홀로 남겨진 자의 인생에 대한 비장함마저 느껴지게 한다. 여기서 ‘노년’을 가리켜 이

상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친구들 가운데 아직 발길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치너지’로서의 노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도손이 원래부터 ‘노년’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19년 1월에 발표한 「세 명의 방문자(三人の訪問者)」(『開拓者』나중에 『飯倉だより』에 수록)라는 에세이 속에서 도손은 노년에 관련된 자신의 감상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세 명의 방문자란 지금까지 ‘추한’ 것이라고만 여겨왔던 ‘겨울·가난·노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확실히 노년을 사계에 비유할 경우 겨울이 가장 어울린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동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난과 결부되어 부정적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었던 셈이다.

최초로 등장하는 ‘겨울’에 대해서 도손은 “좀 더 광택이 없고 단조로우며, 줄린 듯하면서도 가난한 듯이 떠는, 추하고 주름진 노파(もつと光沢のない、単調な、眠さうな、貧しさうに震へた、醜く皺枯れた老婆)”였다고 말하고 있다. “저 산 위에서는 일체의 것은 모두 잠들고(あの山の上では一切のものは皆な潜み隠れ)”“『겨울』의 웃는 얼굴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었다(『冬』の笑顔といふものを見たこともなかつた)”라고 말하고 있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도손의 마음속에 겨울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고정관념을 바꿔 준 것은 도쿄의 교외에서의 ‘겨울나기’였다. 무사시노에서 맞이한 ‘겨울’은 “끝이 파랗게 펼쳐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底青く開けた空を望み得る)”“신기한(めづらしい)” 감흥을 불러일으켰으며, “겨울의 햇빛이 집안 가득 비추이는(冬の日の光が屋内まで輝き満ちる)” 광경을 맛보게 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아자부 쪽에서 겨울나기를 하게 된 이후로 더욱 이 방문자를 고쳐보게 되었다(麻布の方で冬籠りするやうに成つてからは一層この訪問者を見直すやうになつた)”고 회상한다.

이어서 그는 “『겨울』보다도 더한 추함(『冬』以上の醜さ)”을 느끼던 ‘가난’에 대해 거론하며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었던 부드러운 미소조차 발견했다(今迄思ひもよらなかつたやうな優しい微笑をすら見つけた)”고 하여 청빈을 재평가하기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노년’에 대한 언급에 이르러서는 도손의 인생에 대한 통찰이 한층 돋보인다.

‘노년’이 찾아왔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난’이상으로 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하게도 ‘노년’조차 내게 미소 지어 보였다. (중략) 내 곁에 온 것의 얼굴을 잘 보니, 여태까지 내가 가슴에 그리고 있었던 것은 진정한 ‘노년’이 아니라

‘위축’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내 곁에 온 것은 좀 더 빛나는 것이다. 좀 더 고마운 것이다. 그러나 이 방문자가 내 곁에 오게 된 것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중략) 어떻게든 나는 이 손님을 잘 알고 싶다. 그리고 나도 진정으로 나이를 먹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老』が訪ねて来た。

これこそ私が『貧』以上に醜く考へて居たものだ。不思議にも、『老』までが私に微笑んで見せた。(中略)私の側へ来たものの顔をよく見ると、今迄私が胸に描いて居たものは真実の『老』ではなくて、『萎縮』であつたことが分つて来た。自分の側へ来たものは、もつと光つたものだ。もつと有難味のあるものだ。しかし斯の訪問者が私のところへ来るやうになつてから、まだ日が浅い。(中略)どうかして私はこの客をよく知りたい。そして自分もほんたうに年を取りたいものだと思つて居る。

‘노년’에 대해서 ‘위축’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지녀왔던 그가 “좀 더 빛나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표현에 나타나듯이 ‘노년’을 직시하고자 하는 사고의 전환을 엿볼 수 있다. 게다가 그는 “진정으로 나이를 먹고 싶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는 ‘겨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깊게 관련되어 있다. 더 나아가 말미에서는 세 명의 방문자에 이어서 ‘죽음’의 방문을 예감하는 서술이 엿보인다. 그러나 “아마도 내가 이상의 세 명의 방문자로부터 나의 선입견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죽음도 또한 생각지도 않은 것을 내게 알려줄지도 모른다(おそらく私が以上の三人の訪問者から自分の先入主となつた物の考へ方の間違つて居たことを教へられたやうに、『死』もまた思ひもよらないことを私に教へるかも知れない)”라고 하여 사고의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 ‘겨울’이라는 상징적 기술로 시작된 인생의 고뇌가 ‘가난’과 ‘노년’을 거쳐 ‘죽음’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sup>2)</sup>, 이러한 인생의 고뇌에 정면으로 대면하고자 한 도슨이 다다른 인생의 경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노년’의 종국으로서의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희망으로서 인식하게 된 ‘신생’에 대한 희구라 여겨진다. 바로 그러한 염원이 소설 『신생』을 탄생하게 한 원동력이었으며 「폭풍」이나 「분배」 등의 작품에 공통된 선율이 되었던 것이다.

2) 기타가와 다다히코(北川忠彦)는 「『嵐』の位置」(『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島崎藤村II』[有精堂, 1983], pp.236-237)에서 도슨이 ‘노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깊게 갖게 된 동기의 하나로 사메지마 신(鮫島晋: 1852-?)의 죽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메지마 신은 도슨이 고모로의숙(小諸義塾)에서 알게 된 교사로, 1920년 4월에 발표한 「가난한 이학사(貧しい理学士)」에서 사이토(齋藤)선생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노년」에서 묘사되고 있는 ‘겨울·가난·노년·죽음’에 대한 견해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여아의 성장과 노년의 자각- 「성장 준비」

도손은 「폭풍」에 이르러 ‘노년’에 대한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독자적인 경지에 다다랐는데, 이러한 ‘노년’에 대한 관념의 기본적인 토대는 「성장 준비」 속에서 발견된다. 「성장 준비」의 소테코(袖子)의 아버지는 “중년에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에게 흔히 있듯이 홀아버의 몸으로 어떻게든 아이들을 키워 온(中年で連合に死に別れた人にあるやうに、男の手一つでどうにか斯うにか袖子たちを大きくして来た)” 자로, 소테코를 ‘꼭두각시인형’처럼 여겨 왔다. “딸아이의 옷차림은 될 수 있는 대로 청초하게(娘の風俗は成るべく清楚に)” 하려고 했다는 구절에서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는 마치 꼭두각시인형을 대하듯 소테코의 옷가지며 소지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취향대로만 해 왔던 것이다. “언제까지나 자신의 꼭두각시인형 같은 딸로 만들어 두고자 했다(いつまでも自分の人形娘にして置きたかつた)”거나 “언제까지나 아이로 자신이 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いつまでも子供で、自分の言ふなりに、自由になるものゝやうに.....)”이라는 문장에서는, 소테코를 인격체로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그 성장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한 모습 속에는 그의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소테코는 부엌 설거지대 앞에서 일하는 오하쓰 앞에서게 된다.

소테코는 요를 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소테코, 무슨 일이야?”

처음 한 동안은 오하쓰도 이상하게 여겼지만, 소테코로부터 요를 받아 보고 곧장 그 의미를 알아차렸다. 오하쓰는 체격도 크고 힘도 센 여자였기에 소테코의 떠는 몸을 뒤에서 손을 얹어 거의 껴안듯이 하여 다실로 데리고 갔다. 그 방 한구석에 소테코를 눕혔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잘 알아서 해 줄 테니까——누구나 다 있는 일이니까——오늘은 학교를 쉬도록 해”

하고 오하쓰는 소테코의 베갯머리에서 말했다.

할머니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누구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을 듯한 가정에서 난생 처음으로 소테코가 경험하는 일이 생각지도 못할 때 찾아왔다.

袖子は敷布をかゝへたまゝ物も言はないで、青ざめた顔をして居た。

『袖子さん、どうしたの。』

最初のうちこそお初も不思議さうにして居たが、袖子から敷布を受け取つて見て、すぐに

その意味を読んだ。お初は体格も大きく、力もある女であつたから、袖子の震へるからだへうしろから手をかけて、半分抱きかゝへるやうに茶の間の方へ連れて行つた。その部屋の片隅に袖子を寝かした。

『そんなに心配しないでいゝんですよ。私が好いやうにしてあげるから——誰でもあることなんだから——今日は学校をお休みなさいね。』

と、お初は袖子の枕もとで言つた。

祖母さんもなく、母さんもなく、誰も言つて聞かせるものがないやうな家庭で、生れて初めて袖子の経験するやうなことが、思ひがけない時にやつて来た。<sup>3)</sup>

처음 경험하는 신체현상에 놀라 자신 앞에 선 소데코의 모습을 보고, 오하쓰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소데코를 쉬게끔 하겠다고 말을 꺼낸 것이다. 지금껏 아버지로서 엄마의 역할까지 감당해 왔다고 자처했던 아버지였지만, 소데코가 자신의 신체적 징후에 대해서 의지할 사람은 오하쓰였던 것이다. 또한 오하쓰는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소데코의 신체현상을 깊이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주인어른, 소데코는 병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자 아버지는 반신반의한 채로 딸아이 곁을 떠났다. 평소 엄마 역할까지 겸해서 옷시중이건 뭐건 다 떠맡고 있는 아버지라도 그 날만은 전혀 아버지의 소관이 아니었다. 남자인 아버지의 비애는, 아버지는 그 이상의 일을 오하쓰에게 물어볼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旦那さん、袖子さんは病気ではありません。』

それを聞くと、父さんは半信半疑のまゝで、娘の側を離れた。日頃母さんの役まで兼ねて着物の世話から何から一切を引受けて居る父さんでも、その日ばかりは全く父さんの畠にないことであつた。男親の悲しさには、父さんはそれ以上のことをお初に尋ねることも出来なかつた。

위의 인용문에 나타나는 초경에 대한 묘사 속에는 남자로서 뛰어넘을 수 없는 이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딸아이와의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교감의 한계이기도 하다.

얼마 안 있어 귀가할 두 아들이 소데코가 학교를 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여 오하쓰에게 자신이 몸 상태가 안 좋은 소데코를 쉬게 했다고 알려주게 되는데, 막상 두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고 쉬고 있는 소데코를 몰아세우자 오하쓰는 “소데코는 내가 쉬게 했어——오늘

3) 본 논문에서의 도슨 작품의 인용은 『藤村全集』第十卷(筑摩書房, 1967)에 의거했다.

은 내가 쉬게 한 거야(袖子さんは私が休ませたんですよ——けふは私が休ませたんですよ)”라고 말해 버린다.

이상한 침묵이 이어졌다. 아버지조차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저 그냥 아버지는 잠자코 소테코가 자고 있는 방 밖의 복도를 왔다 갔다 했다. 마치 소테코의 어린 시절이 이제 종말을 고한 것처럼——언제까지나 그렇게 아버지의 꼭두각시인형 같은 딸로는 있지 않을 것 같은, 고대하던 어느 날이 마침내 아버지의 눈앞에 찾아온 것처럼.

不思議な沈黙が続いた。父さんでさへそれを説き明かすことが出来なかつた。たゞ／＼父さんは黙つて、袖子の寝て居る部屋の外の廊下を往つたり来たりした。あだかも袖子の子供の日が最早終りを告げたかのやうに——いつまでもさう父さんの人形娘では居ないやうな、ある待ち受けた日が、到頭父さんの目の前へやつて来たかのやうに。

“소테코의 어린 시절이 이제 종말을 고한 것처럼”이라는 대목은 바로 자신의 젊은 날의 종지부를 찍는 것과 같은 의미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아버지는 “오하쓰, 소테코의 일은 너에게 부탁하마(お初、袖ちやんのことはお前によく頼んだぜ)”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한편 “급작스런 변화(急激な変化)”에 놀란 소테코는 오하쓰로부터 세세한 교육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어머니라도 살아계셔서 그 무릎에 안긴다면 좋겠는데 하고 계속 그림계 생각했다(こんな時に母さんでも生きて居て、その膝に抱かれたら、としきりに恋しく思つた)”고 되어 있듯이 어머니의 빈자리에 가슴아파하게 된다.

이처럼 「성장 준비」에는 주로 초조(初潮)와 관련된 성적인 자각을 하게 된 딸아이의 신체적 변화를 바라보며, 그때까지 완구처럼 여겨왔던 딸아이를 인격체로서 인식함과 동시에 이성 부모가 지니는 한계점을 각인함으로써 야기되는 심적인 동요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노경에 다다른 작가의 인식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성장 준비」가 여아인 소테코의 성장에 한정지어 그 성적인 자아의 각성과 더불어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노년을 예감하는 모습이 암시적으로 나타난 단편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발표된 「폭풍」은 주로 남자아이들의 성장과 자신의 노년의 삶에 대한 자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

#### 4. ‘노년’에 대한 극복의 의지- 「폭풍」

「폭풍」은 발표당시, 마사무네 하쿠초(正宗白鳥)가 「노경의 인생기록<sup>4)</sup>」이라 평가한 바와 같이 노년기를 앞둔 작자의 인생에 대한 통찰이 원숙한 경지에 다다랐음을 말해주는 수작이다. 「성장 준비」를 부녀의 이야기라 한다면 「폭풍」은 부자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모두부에서는 “일찍 자신의 배우자를 잃고 여섯 살을 필두로 네 명의 어린 것을 껴안은(早く自分の配偶者を失ひ、六歳を頭に四人の幼いものをひかへ)” 주인공 ‘나’가 “부자유한 홀아비의 손으로라도 어떻게든 내 아이를 못 키울 것은 없을 것이다(不自由な男の手一つでも、どうにか吾が児の養へないことはあるまい)”라고 하며 홀로 네 아이를 키우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아직 마흔 둘이라는 남자의 액년을 맞이했을 뿐이었다(まだ四十二の男の厄年を迎へたばかりだつた)”는 왕년의 ‘나’는 “중병도 노년의 고독이라는 것도 몰랐(重い病も、老年の孤独といふものも知らなかつた)”으나, 육아에 쫓기는 동안에 서서히 병마가 그의 육체를 침식하여 “생각지 못한 병이 쉰 고개를 넘어섰을 무렵에 몸에 나타났(思いがけない病が五十の坂を越した頃の身に起つて来た)”음을 인식하게 된다. 오로지 아이들의 성장만을 바라며 타자에게 향해져 있었던 ‘나’의 시선이 방향전환을 하여 자기발견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하루빨리 아이들이 성장하기만을 기다리던 ‘나’는 막상 그 날이 다가오자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닐까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온 자신(もう動けないやうな人になつてしまふかと思ふほど、そんなに長く坐り続けた自分)”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보며 그는 다음과 같은 회상에 젖어든다.

언제나 내 손을 보고 있으면 내 얼굴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내 버릇이다. 꺼림칙한 일만이 마음에 떠올랐다. 나는 이 다다미 녀 장 반짜리 천정으로부터 수많은 구더기가 떨어졌던 것을 생각해 냈다. 그것이 내 책상 옆으로도 떨어지고 다다미 위에도 떨어져 쓸고 쓸어도 계속 떨어지는 소리가 났던 것을 생각해 냈다. 무엇이 썩어서 문드러졌나하고 웬지 기분이 나빠져서 이층 방에서 마루판자를 벗겨 보니, 죽은 쥐가 두 마리나 그곳에서 나왔는데, 그 중 하나는 작은 동물의 해골이라도 보는 것처럼 희게 바래 있던 것을 생각해 냈다. 나는 두려워졌다. 무언가 이렇게 자신에 관한 일을 형태로 나타내서 일부러 보여주는 듯한 것이, 게다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자신의 바로 머리 위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 냈다.

그 때를 생각하니 지나간 칠년을 나는 폭풍 속에 계속 앉아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든다. 내 몸에 있는 것 중에 무엇 하나 그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은 없었다. 머리는 완전히 희어지고, 오래 앉아있어서 발등에 생긴 못은 콩처럼

4) 正宗白鳥 「文芸時評」(『中央公論』1926.10)(『藤村全集』別卷上[筑摩書房, 1971], p.280)

딱딱하고, 허리는 썩어버릴 듯이 무거웠다.

いつでも自分の掌を見てみると、自分の顔を見るやうな気のするのが私の癖だ。忌々しいことばかりが胸に浮かんで来た。私はこの四畳半の天井から沢山な蛆の落ちたことを思ひ出した。それが私の机の側へも落ち、畳の上へも落ち、掃いても／＼落ちて来る音のしたことを思ひ出した。何が腐り爛れたかと薄気味悪くなつて、二階の部屋から床板を引きへがして見ると、鼠の死骸が二つまでそこから出て来て、その一つは小さな動物の骸骨でも見るやうに白く曝れてゐたことを思ひ出した。私は恐ろしくなつた。何か斯う自分のことを形にあらはして見せつけるやうなものが、しかもそれまで知らずにゐた自分の直ぐ頭の上にあつたことを思ひ出した。

その時になつて見ると、過ぐる七年を私は嵐の中に坐りつゞけて来たやうな気もする。私のからだにあるもので、何一つその痕跡をとゞめないものはない。髪はめつきり白くなり、坐り胼胝は豆のやうに堅く、腰は腐つてしまひさうに重かつた。

자신의 방 천정에서 수많은 구더기가 떨어지고 죽은 쥐의 시체가 발견됐던 꺼림칙한 기억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노쇠한 신체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중국에는 썩어져 갈 자신의 육체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손을 뒤집어보고는 “내 손바닥은 아직 붉어(自分の掌はまだ紅い)”라고 고쳐 생각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단순한 생각에 의해 반전의 효과를 얻어내는 발상의 전환법은 도손 특유의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묘사를 속에서 생애 대한 강한 욕구와 신생애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초봄의 죽순과 같은 기세로 쭉쭉 성장해 온(春先の筍のやうな勢ひでずんずん成長して来た)” 아이들의 ‘성장’과 대조적으로 비치는 ‘나’의 ‘노년’의 모습은 생과 죽음의 대비로 바뀌서 설명할 수 있다. 「폭풍」은 아이들의 성장과 나의 노쇠라는 생명력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축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인 것이다.

「폭풍」의 중반부에서 ‘나’는 4년간의 경작 견습을 마친 다로를 위해 고향에 새 집을 지어주기로 한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실 때가 있다(父のことを思つて涙ぐむことがある)”고 할 정도로 성장한 ‘자식의 마음’에 감동한 ‘나’는 “그 새 집을 보러 가고 싶은 마음(あの新しい家を見に行きたいと思ふ心)”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서 ‘눈물짓는’ 행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상호이해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윽고 ‘나’는 다로의 집인 “요모기야(四方木屋)”를 방문하여 고향의 자연을 접하는 가운데 재생의 계기를 발견하기에 이른다. 다로의 집을 방문한 ‘나’는 자신의 아버지를 상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생명의 근원을 깊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나’가 ‘노년’의 고독으로부터 벗어나 소생에 이르게 된 것은 아이들과의 관

계를 통해 죽음에서 재생으로의 반전이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아버지와 자식의 단절이 아닌, ‘젊음’과 ‘늙음’이 상호 호응하는 점에 이 소설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 전환점이 된 것은 바로 도쿄에 돌아와서 환기한 우물물이었다.

나는 또, 물이 부족한 저 산 위에서 우리 집의 먼 선조가 남긴 낡은 우물물이 다로의 집에 되살아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냈다.(중략)

지난 7년간 계속되어 온 것 같은 쓸쓸한 폭풍의 흔적을 다시 고쳐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이런 마음은 저 다로의 집을 보기까지는 내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私は又、水に乏しいあの山の上で、遠い吾家の先祖の遺した古い井戸の水が太郎の家に生き返つてゐたことを思ひ出した。(中略)

過ぐる七年の間続きが続いて来たやうな寂しい嵐の跡を見直さうとする心を起した。こんな心持は、あの太郎の家を見るまでは私に起らなかつたことだ。

“선조가 남긴 낡은 우물물”의 부활에 엿보이는 생명의 순환성은 ‘나’의 내면에 “지난 7년간 계속되어 온 것 같은 쓸쓸한 폭풍의 흔적을 다시 고쳐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이 문장에 엿보이듯이 “선조가 남긴 낡은 우물물”이 다로의 집에 소생한다는 구도는 매우 상징적이라 할 수 있다. 우물물의 부활은 노년의 고독에 휩싸여 있던 ‘나’의 내면에 희망을 환기시켜준 일대사건이다. 우물이란 원래 신성한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살아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뜻한다. 또한 그 자체가 소우주를 의미하며, 죽은 자들의 주거와 교신할 수 있다.<sup>5)</sup> 한편 보편적 상징체계로서의 우물물에는 ‘치유의 힘’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sup>6)</sup> 「폭풍」의 주인공 ‘나’는 우물물의 부활사건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 고향의 자연 속에서 일종의 치유의 과정을 겪었으며,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 노년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활로를 발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우물물의 부활사건은 그의 내면에 생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된 셈인데, “쓸쓸한 폭풍의 흔적을 고쳐 보고자(寂しい嵐の跡を見直さうと)” 하는 모습 속에서, 자식의 내면에 부활하는 자로서의 아버지의 자질, 바꿔 말하자면 생명력의 전이라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다로를 고향에 귀농시키고 자식에게 희망을 거는 장면에서 ‘나’는 자기구제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도쿄로 돌아와 “다시 한 번 이 지붕 아래에

5) ジャン・シュヴァリエ、アラン・ゲールブラン共著／金光仁三郎他訳『世界シンボル大事典』(大修館書店, 1996), pp.82-83

6) 진 쿠퍼/이윤기 옮김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까치, 2001), p.400

서 견뎌보려고(もう一度この屋根の下に辛抱して見ようと)” 결의하게 되는데, 이는 그 자신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낡은 집에 남아 있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생의 전개는 독립해 가는 아이들의 몫으로 내맡기고 자신은 노년의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나’의 노년의 고독에 대한 극복과정에는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 이어지는 생명력의 발견과, 생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의 생의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로의 귀농에는 끊임없는 죽음과 재생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자연의 섭리의 발견이 엿보이며 인생에 대한 반영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꺼림칙한(忌々しい)” ‘노년’의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구한 끝에 얻어진 결과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어지는 생명력의 연속성에 대한 발견인 것이다. 결국 ‘나’는 아이들에게 이어짐으로써 ‘소생’할 수 있다는 인식에 다다른 셈이다. “『아버지는 아버지,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 『나는 나, 아이들은 아이들』도 아니라, 진정한 『우리들』을 향한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父は父、子は子』でなく、『自分は自分、子供等は子供等』でもなく、ほんたうに『私達』への道が見えはじめた)”라고 하는 구절은, 부자간의 교감의 발견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생명력의 전이를 희구하는 작가의 주제의식이 명백히 드러나는 부분이라 하겠다. 다로를 위해 마련한 “영주할 집(永住の家)”과 자신의 “임시의 셋집(仮の借家住居)” 사이에 “무지개와 같은 다리(虹のやうな橋)”가 놓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장면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생명의 연속성을 통해 자기구제의 가능성을 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겨울이 지난 뒤 봄이 찾아오는 자연의 섭리처럼 삶과 죽음을 단절이 아닌 연속의 개념 속에서 이해하고, 이를 직선적 구조가 아닌 순환적 구조 속에서 그려내고자 한 점에 도손의 인생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주의 원환적 질서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그려내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 그와 같은 과거와 밀접하게 연결된 시간 개념으로서의 미래에 대한 생의 의지를 통해 노년과 죽음에 대한 내면적 고뇌를 극복하고자 한 점에서 도손의 작가의식을 다시금 평가해 볼 만 하다고 본다.

이처럼 『폭풍』은 ‘노년’ 내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론적인 주제를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시점에서 담담히 이야기하는 듯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는데, 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작가 도손이 다다른 인생관의 도달점을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에 대해 다카하시 마사코(高橋昌子)는 “현실직시가 가져다주는 니힐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굳이 생장에 대한 희망을 서정적으로 노래한 점에 『폭풍』의 생에 대한 긍정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희망은 몽상에 의해서만 안겨진다는 냉철한 현실을 알면서도 또한 희망을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씩씩한 항일성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

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작가 도손이 지니고 있는 생에 대한 집요한 의지의 표명이라 해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폭풍』이 다분히 상징적이며 몽상적인 측면이 두드러진 작품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현실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노년의 양상을 그린 작품이 바로 「분배」이다.

## 5. 자식들에 대한 부의 분배 - 「분배」

「폭풍」의 속편<sup>8)</sup>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분배」는 아이들의 어머니의 죽음과 상실감으로 시작한다. 아이들의 어머니의 시절은 이미 “먼 과거(遠い過去)”의 세월 속에 추억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그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눈에 띄게 네 아이들에게는 돈이 들게 되었다(眼に見えて四人の子供には金もかゝるやうになつた)”라는 문장에 나타나듯이 금전적인 문제였다. 때로는 이사도 생각해가며 아이들을 하나둘 자신의 곁에서 떠나보내고 남은 것은 딸 아이 혼자뿐이었다. “사부로를 떠나보내고 나서는 별안간 우리 집도 조용해져서 식탁도 쓸쓸했다(三郎を送り出してからは、にはかに私達の家もひつそりとして、食卓もさびしかつた)”라고 하는 문장에는 아이들의 성장과 독립으로 인한 주인공의 고독이 잘 드러나고 있다.

보금자리에서 나뉘어 가는 별처럼, 언제인가 막내도 오빠들 뒤를 따라서 나에게서 떠나갈 날이 온다. 그것은 이제 시간문제로 보였다. 나는 나이 들어서 고독한 나의 모습을 상상으로 가슴에 떠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내가 바라는 바였다. 나 말인가? 나는 삼십년을 하루처럼 저작생활로 보내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에는 칠십 몇 살인가의 말년에 와서 아직 생활을 단순하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집에서도, 처자식에게서도, 모든 재산으로부터도 벗어나, 완전히 혼자가 되려고 한 사람도 있었다고 들었지만, 일찍 아내를 먼저 보낸 나는 그것과는 반대로, 자신은 집에 머물러서 성장하는 아이를 차례로 내보내 점점 혼자가 되는 길을 걸어왔다.

내 주위에는 벌써 몇 번인가 죽음이 찾아왔다. 최근에도 다시 혼고에 사는 젊은 조카가 갑자기 신장염으로 죽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7) 「現実直視のもたらすニヒリズムを克服するために、あえて生長への希望をリカルに謳ったところに『嵐』の生の肯定の特徴があるのだが、それは、希望は夢想によってしかもたらされないという冷たい現実を知りつつ、なお希望を書かずにはいられない苦い向日性ともいべきものなのではなからうか。」(高橋昌子『島崎藤村 遠いまなざし』[和泉書院, 1994], pp.201-202)

8) 島崎翁助「解説」(島崎藤村『嵐 他二編』[岩波書店, 1956], p.122)

巢から分れる蜂のやうに、いづれ末子も兄達の後を追つて、私から離れて行く日が来る。これは最早、時の問題であるやうに見えた。私は年老いて孤独な自分の姿を想像で胸に浮べるやうになつた。

しかし、これはむしろ私の望むところであつた。私か。私は三十年一日のやうな著作生活を送つて来たものに過ぎない。世には七十いくつの晩年になつて、まだ生活を單純にすることを考へ、家からも妻子からもいっさいの財産からも遁れ、全くの一人とならうとした人もあつたと聞かぬが、早く妻を先立てた私はそれと反対に、自分は家にとゞまりながら成長する子供を順に送り出して、だん／＼一人になるやうな道を歩いて来た。

私の周囲へはすでに幾度か死が訪れて来た。最近にもまた本郷の若い甥の一人がにはかに腎臓炎で亡くなつたといふ通知を受けた。

위의 인용문에는 노년의 고독과 더불어 그의 뇌리를 스쳐지나가는 주위사람들의 죽음이 묘사되고 있다. 또한 죽은 조카의 아내로, 동시에 죽은 아내의 옛 친구이기도 한 가쓰미 부인이 찾아왔을 때 조카 쓰치야(土屋)와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무렵의 일을 회상하게 된다. 이 17년만의 만남은 변모한 외모만큼이나 어색함으로 다가왔다.

“둘째의 어머니가 이제까지 살아계신다면 몇 살이 되셨을까요?”

내가 이런 말을 꺼낸 것은 그 어머니와 가쓰미씨가 나이가 몇 살도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머니 말씀인가요? 올해로 꼭 차셨을 나이죠.”

가쓰미씨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예전 그대로의 ‘아저씨, 아주머니’이다. 그때 아오야마의 조카딸이 가쓰미씨의 “꼭”이라는 말을 듣고 따지며,

“꼭이라 하신다면——”

“쉰 살이에요.”

이 ‘쉰 살’이라는 말이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자신이 나이든 것도 잊고, 그 어머니가 오늘까지 팔팔하다면 벌써 그런 할머님이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봤다.

『次郎ちゃん達のか母さんが今まで達者でゐたら、幾つになつて居ませう。』

私がこんなことを言ひ出したのは、あの母さんとかつみさんといくつもの年の違はなかつたことを覚えてゐるからで。

『叔母さんですか。ことして、ちやうどにお成りの筈ですよ。』

かつみさんの口から出て来る話は、昔ながらの『叔父さん、叔母さん』だ。その時、青山の姪はかつみさんの『ちやうど』を聞きとがめて、

『ちやうどと言ひますと——』

『五十ですよ。』

この『五十』が私を驚かした。私は自分の年とつたことも忘れて、あの母さんがきょうま

でびん／＼してゐるとしたら、もうそんな婆さんか、と想つて見た。

위의 인용문에서는 죽은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쉼 살이 되었을 거라는 말에 새삼스럽게 놀라며, ‘할멈’이 되었을 그녀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나’의 모습이 발견된다. 삼십대에 유명을 달리 한 그들의 이른 죽음이 “원여섯이라는 나이도 허무하게 흘러가고 있는(五十六といふ年も空しく過ぎて行きかけてゐた)”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의 양육에 들어가는 돈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생활을 보내오지 못한 주인공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수입(思ひもよらない収入)”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것은 문학총서의 엮가출판으로 인해 거둬들이게 된 막대한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다.<sup>9)</sup> “머리도 백발만 더할 뿐(髪も白さを増すばかり)”인 ‘나’는 이 뜻밖의 수입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면서 “돈이라도 저축해 두고, 여생을 편하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나이에 이른(金でも貯へて置いて、余生を安く送らうとするやうな年ごろに達した)”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땅 속에라도 파묻어 두듯이 죽은 돈을 묻어 둘 마음은 없었다. 어떻게 그것을 쓸까 하고 생각했다(土の中へでも埋めて置くやうに、死に金をしまつて置く気はなかつた。どうそれを使つたものかと思つた)”라는 문장에 보이듯이 돈의 용처에 대해 고민하던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나는 여행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까지처럼 아주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고 싶었다. 집은 나의 여관이고, 아이들은 나의 길동무이다. 그날그날 웅색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세상의 여행은 족하다. 내게 소중한 것은 여생을 보장하는 그런 돈보다는 강한 발과 허리의 뼈였다.

크게 자란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주는 새로운 기쁨, 그 생각은 어떻게 든 아버지의 손 하나로 네 명의 작은 녀석들을 길러온 나에게 어울린다고 생각되었다. 나는 자신의 소유보다도 이번의 뜻밖의 수입을 자라나는 자들에게 쓰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차라리 그 돈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자.”

私は旅人のやうな心で、今迄通りのごあたりまへな生活を続けたかつた。家は私の宿屋で、子供等は私の道連れだ。その日、その日に不自由さへなくば、それでこの世の旅は足りる。私に肝要なものは、余生を保障するやうな金よりも強い足腰の骨であつた。

大きくなつた子供等と一緒に働くことの新しい歓び、その考へはどうか男親の手一つで

9) 1926년부터 1929년 후반까지 있었던 엔본 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개조사(改造社)가 한 권에 1엔이라는 『현대일본문학전집(現代日本文学全集)』이 반향을 불러 약 35만부를 판매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그 후 신초사(新潮社)의 『세계문학전집(世界文学全集)』, 헤이본사(平凡社)의 『현대대중문학전집(現代大衆文学全集)』 등 각사가 비슷한 시리즈물을 잇달아 간행하여, 그 결과 작가들에게도 막대한 인세가 지급되게 되었다.

四人のちひさなものを育て、来た私にふさはしく思はれた。私は自分の身につけるよりも、今度の思ひがけない収入を延び行く時代のものの方に向けようと考へるやうになつた。

私は自分に言つた。

『いつそ、あの金は子供に分けよう。』

일신의 안녕을 구하기보다는 차라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분배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폭풍」에 엿보이는 아버지의 인생에 대한 자세가 이 작품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아이에게 똑같이 소득을 분배하기로 한 그는 다로에게 송금을 하며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쓰게 된다.

너의 집에서 손이 부족한 것은 아버지도 잘 알고 있다. 아버지는 따로 도와 줄 수도 없으니까, 너의 경작을 도와주는 대신 이것을 부친다.(중략)

이것은 단지 돈으로 아버지한테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정표로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부디 이 돈을 너의 농가에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お前の家でも手の足りないことは、父さんもよく承知してゐます。父さんはほかに手伝ひのしやうもないから、お前の耕作を助ける代りとしてこれを送ります。(中略)

これはたゞ金で父さんから貰つたと考へずに、父さんがお前と一緒に働いてゐるしと考へて下さい。くれぐれもこの金をお前の農家に送る父さんの心を忘れないで下さい。

아이들에게 분배하는 돈을 단순히 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자신들의 생애 동참하는 아버지의 의지이자 자신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다. 아이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물질’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다. 「폭풍」에 엿보이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상호이해에 대한 염원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 앞에는 아직 얼마 들여다보지 못한 노년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여기까지 데리고 온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각각 도움이 될 날도 올 것이라 생각해서, 긴 여행 도중의 길가에 생각지 않은 수입을 살짝 남겨놓고 가려고 했다.

私の前には、まだいくらも覗いて見ない老年の世界が待つてゐた。私はこゝまで連れて来た四人の子供等のため、何かそれ／＼役に立つ日も来ようと考へて、長い旅の途中の道ばたに、思ひがけない収入をそつと残して置いて行かうとした。

위의 인용문에서는 노년과 죽음에 대한 심경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인세 분배의 행위를 통해 ‘나’는 앞으로 전개되어질 노년과 사후의 세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유산배분과도 같은 사후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형태로 여행연습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폭풍」의 세계가 노년과 사후의 신생에 대해 추상적인 필치로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분배」는 노년에 접어든 노작가의 자신의 죽음에 대한 대비와 아이들에 대한 재산분배라는 지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단면을 그림으로써 이 시기에 있어서 ‘노년’에 대한 도손의 의식구조의 완결을 그리고 있다고 본다.

## 6. 나오는 말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도손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양상을 살펴봤다. 『신생』에서 아직 실질적으로 노인이 되기 전 단계의 ‘노년’의 예감을 그렸던 도손은, 다이쇼말기에서 쇼와초기에 걸쳐서 발표한 「성장 준비」 「폭풍」 「분배」 등의 작품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자신의 노년을 중심으로 한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그려냈다.

「성장 준비」에는 여아인 소테코의 성장에 한정지어 그 성적인 자아의 각성과 더불어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노년을 예감하는 모습이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폭풍」에는 생과 사를 직선적 구조로 파악하지 않고 겨울이 지난 뒤 봄이 오는 자연의 섭리처럼 순환적 구조 속에서 그려내고자 한 도손의 이해가 엿보임을 알 수 있다. 고향의 우물물의 부활사건과 더불어, 다로의 “영주할 집”과 자신의 “임시의 셋집” 사이에 “무지개와 같은 다리”가 놓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장면 등에서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생명의 연속성을 통해 “꺼림칙한” 노년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기구제의 가능성을 그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배후에는 원환적 시간개념에 대한 인식이 뒷받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배」는 노년에 접어든 주인공의 현실인식과 아이들에 대한 부의 분배라는 지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단면을 그림으로써 이 시기에 있어서 ‘노년’에 대한 도손의 의식구조의 완결을 엿볼 수 있다.

이 세 작품에는 그와 같은 과거와 밀접하게 연결된 시간 개념으로서의 미래에 대한 생의 의지를 통해 노년과 죽음에 대한 내면적 고뇌를 극복하고자 한 도손의 의식세계가 담담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 【参考文献】

- 진 쿠퍼/이윤기 옮김(2001)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p.400
- 伊東一夫編(1982) 『島崎藤村事典 改訂版』 明治書院, pp.163-164
- 大友英一他2人(1989.4) 「座談会 昭和文学に描かれた「古い」」 『国文学解釈と鑑賞』 至文堂, pp.6-21
- 北川忠彦(1983) 「『嵐』の位置」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島崎藤村Ⅱ』 有精堂, pp.230-242
- 島崎藤村(1956) 『嵐 他二編』 岩波書店, p.122
- \_\_\_\_\_(1967) 『藤村全集』 第九卷, 筑摩書房, pp.5-9, pp.84-85
- \_\_\_\_\_(1967) 『藤村全集』 第十卷, 筑摩書房, pp.3-61, 301-325
- \_\_\_\_\_(1971) 『藤村全集』 別卷上, 筑摩書房, p.280
- 下山嬢子(1990.4) 「『嵐』」 『国文学解釈と鑑賞 特集島崎藤村の再検討』, pp.106-110
- ジャン・シュヴァリエ、アラン・ゲールブラン共著／金光仁三郎他訳(1996) 『世界シンボル大事典』 大修館書店, pp.82-83
- 高橋昌子(1994) 『島崎藤村 遠いまなざし』 和泉書院, pp.190-209
- 千田洋幸(1995.2) 「父＝作者であることへの欲望—『嵐』ノート—」 『東京学芸大学紀要』 第2部門第46集, pp.277-284
- 中山弘明(1989) 「『嵐』の機能—方法としての〈古い〉—」 『早稲田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別冊』 第16集, pp.21-31

## 要 旨

「伸び仕度」「嵐」「分配」という三つの短編は、大正末期から昭和初期にかけて発表されたもので、子供の成長とともに〈老年〉を前にした作者の心境が作品を支える大きな軸の一つとなっており、作品解釈に重要な要素として働いている。まず、「伸び仕度」は袖子の初潮を素材にした作品で、そこから自分の老年を予感する様子が暗示的に現れている。それから『嵐』は、〈老い〉と〈死〉の恐怖を、子の成長を見守りつつ乗り越えていく過程を描いた作品で、〈生命〉に対する深い理解と洞察力が見事に現れている。太郎の帰農には、自然の中に見られる、〈死〉と〈再生〉のサイクルを繰り返すという〈生命〉の循環性が見受けられるが、主人公は父から子に流れ伝わる生命力の連続性を見いだすことによって、「忌々しい」〈老い〉の恐怖から解放を目指す。一方、「分配」には、老年に差し掛かった主人公の現実認識と子供への富の分配というごく具体的で実際のな生の断面が描かれており、この時期においての〈老い〉に対する藤村の意識構造の完結を描いていると思われる。

この三つの作品には、過去と密接に結ばれている時間概念のとしての未来に対する生の意志を通して、〈老い〉と〈死〉に対する内面的苦悩を克服しようとした藤村の意識世界が淡々と描かれているように思える。

キーワード：藤村、冬、老い、死、伸び仕度、嵐、分配

투 고 : 2007. 5. 31  
1차 심사 : 2007. 6. 9  
2차 심사 : 2007. 6. 30

住 所 : (431-79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2 관악청구아파트 134-803  
電 話 : 031-386-9045  
e-mail : yimtkje@sungkyul.edu